

한국 SF가 '80년 광주'를 이야기하는 방법*

임태훈**

1. '80년 광주'를 이야기하는 SF
2. '5·18 상상력'의 구조 변동 1980-1989
3. '1993년'이라는 전환점과 SF의 만남
4. '80년 광주'와 'SF'를 잇는 새로운 매개자
5. 밀레니엄 이후, 다른 우주 사이의 '80년 광주'
6. 결론을 대신하여 : 전두환의 사소한 죽음과 거대한 SF

국문초록

한국 SF가 '80년 광주'를 이야기한 사례는 손에 꼽을 숫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80년 광주 SF'는 1980년 이래 정치 사회 변동의 중요 국면마다 확인된다는 점에서 결정적이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다. ① '5·18'을 'SF'와 연결하는 상상력은 사회 구조의 변동과 어떻게 연결되며 발현하는가? 이를 위해 잠재적 창작 역량으로서의 '5·18 상상력'의 형성 추이를 추적한다. ② '5·18이 소거된 광주'를 상상하는 서사는 왜 기피되거나 시도하더라도 정치적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③ '80년 광주'를 이야기하는 SF는 임철우, 윤정모, 홍희담 등의 이른바 非 SF 문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상으로 삼은 소설은 채영주의〈시간 속의 도적〉(1993), 김세랑의〈ARMOR'S STORY〉(1993)와 강유한의〈리턴1979〉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A8080539)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2009-2011), 김희선의 <무한의 책>(2017)이다.

1979년 12·12 사태로부터 1980년 5·18, '5·18'을 둘러싼 용어 변천사, 84년 유화 국면 이래의 학술 출판계의 대응,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 정권별 5·18과 통일에 대한 정책 변화, 1993년 문민정부의 탄생과 하나회 축출, 역사바로세우기 정책, 세기말에서 밀레니엄 시기의 5·18을 둘러싼 각종 논쟁 등을 추세선(趨勢線)으로 인식하고 '80년 광주 SF'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역사의 추세를 역산(逆算)하는 '외삽법(Extrapolation)'을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삼았다.

시기별로 그 흐름을 소략하면, '5·18'을 'SF'와 연결하는 상상력은 1980년대 한국에선 불가능했다. 전환점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이였다. 1993년 3월에 채영주의 <시간 속의 도적>, 1993년 <취미가> 3월호와 4월호에 김세량의 <ARMOR'S STORY>가 발표됐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80년 광주'와 'SF'의 접목은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적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역설적인 활기를 되찾는다. '5·18 상상력'을 우익의 관점에서 갱신하는 강유한의 대체 역사소설 <리턴1979>가 이 시기(2007-2011)에 연재됐다.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17년에는 김희선의 <무한의 책>이 발표된다. 각각의 작품을 잇는 흐름을 통해 '5·18 상상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실과 해석, 정서들의 나열 속에 맴돌게 하지 않을 '사이', 국가의 영역이나 제도화된 학계의 영역에 분류되지 않을 때 가능한 '사이'를 사유하는 SF의 발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주제어: 80년 광주 SF, 5·18 상상력, 외삽법, 시간 속의 도적, 리턴1979, 무한의 책, 취미가, 채영주, 강유한, 김세량, 김희선)

1. '80년 광주'를 이야기하는 SF

한국 SF가 '80년 광주'를 이야기한 사례는 손에 꼽을 숫자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 파악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80년 광주'를 'SF'에 연결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 연구가 여지껏 필요성 수준에서조차 제기되지 않은 까닭 역시 여기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80년 광주 SF'는 1980년 이래 정치 사회 변동의 중요 국면마다 비등점의 물방울처럼 확인된다. 창작을 추동하는 사회 환경 조건의 형성과 각종 억압 장치들의 재배치, 다른 서사에 대한 집단적 수요와 대응의 점점 등이 비등점에 다다랐을 때, 희소하지만 결정적인 대상 텍스트들이 발견됐다. 이것은 상상력이 본래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상상력은 한 개인의 독점적 역량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며 사회 구조와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역량은 확장되는 동시에 수축하며, 열림과 닫힘이 수시로 엇갈린다. 해방적 개념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 착각의 순간조차 억압의 결과인 경우가 허다하다. SF는 이 역설을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는 '방법(method)'이다.¹⁾

이 글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다. ① '5·18'을 'SF'와 연결하는 상상력은 사회 구조의 변동과 어떻게 연결되며 발현하는가? 이를 위해 잠재적 창작 역량으로서의 '5·18 상상력'의 형성 추이를 추적한다. ② '5·18이 소거된 광주'를 상상하는 서사는 왜 기피되거나 시도하더라도 정치적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③ '80년 광주'를 이야기하는 SF는 임철우, 윤정모, 홍희담 등의 이른바 非 SF 문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을 풀어갈 희소하지만 결정적 대상 작품은 채영주의 <시간 속의 도적>(1993), 김세량

1) C 라이트 밀즈, 『사회학적 상상력』, 강희경·이해찬 역, 돌베개, 2004, 18-22쪽.

의〈ARMOR'S STORY〉(1993)와 강유한의 〈리턴1979〉(2009-2011), 김희선의 〈무한의 책〉(2017)이다.

이상의 작품을 SF로 지칭할 근거는 비교적 익숙하다. 시간 여행, 디스토피아와 종말을 경고하는 미래인의 존재, 평행세계, (다른 무엇보다 직관적 변별점일) Sci-fi한 기계장치 등을 중요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작품을 한데 묶을 더 근본적인 SF의 기준점은 '외삽법(Extrapolation)'이다.

역사의 시간선(時間線) 위에 나열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구성체는 여러 대상의 관찰값으로 종합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래할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적 사고는 SF만이 아니라 역사 소설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역사 속에서 '常數'로 굳어진 실패한 사건을 '變數'로 재인식하고, 성공을 가정해서 그 후의 역사를 전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외삽법적 사고는 상상력의 구조적 변동과 한계에 맞물려 있고, 개연성 없는 것에 대한 내외부의 검열이 늘 작동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수학 이론체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공리(公理, axiom)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때 서사는 '허풍', '공상', '황설수설'에 불과하게 된다. 이 수준에 머물 뿐이라면 독자는 작품 속의 시공간에 몰입하기 어렵다. SF보다 역사소설의 진중한 독자들이 가장 질색하는 경멸의 영역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시기마다 '80년 광주 SF'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역사의 추세를 역산(逆算)하는 것이다. 1979년 12·12 사태로부터 1980년 5·18, '5·18'을 둘러싼 용어 변천사, 84년 유화 국면 이래의 학술 출판계의 대응,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 정권별 5·18과 통일에 대한 정책 변화, 1993년 문민정부의 탄생과 하나회 축출, 역사바로세우기 정책, 세기말에서 밀레니엄 시기의 5·18을 둘러싼 각종 논쟁 등을 추세선(趨勢線)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시간 속의 도적〉, 〈ARMOR'S STORY〉, 〈리턴 1979〉, 〈무한의 책〉이 변동하는 선의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

한다. 전술했던 '비등점'을 짚어내겠다.

2. '5·18 상상력'의 구조 변동 1980-1989

'5·18'은 1980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광주폭동', '광주대학살', '광주사태', '광주민중화운동' 등으로 용어의 변천을 겪었다.²⁾ '5·18 상상력'의 사회적 구조 변동은 이 중 어떤 용어를 선택하거나 회피하게 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18'에 대한 불/가능한 서사의 임계성(臨界性)도 재구성된다.

'광주민중화운동'이라는 용어가 학계와 출판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1989년에도 미국은 '광주사태'를 공식적인 용어로 고수했다. 1989년 주한 미국 공보원에서 발행하는 『시사평론』에는 그 이유가 “정치적 판단을 함축하는 용어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으나³⁾, '광주사태'는 1980년 5월 31일 발표된 계엄사 발표 전문에서 처음 선택된 용어였다.⁴⁾ '광주폭동' 역시 계엄사에 장악된 대중 매체를 통해 유포됐다.

2) 최영태, 「5·18항쟁의 명칭문제 :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116-127쪽 참고. 후술할 채영주의 『시간 속의 도적』은 1993년에 발표된 소설이고, 작중 시간대가 1998년이다. 하지만 광주 뒷골목 사내의 대화에서도 '5·18'은 '광주사태'로 통용된다. “내가 구두통 하나를 올려메고 광주바닥을 휘돌기 시작한 건 열네 살부터였지. 광주사태가 났을 적엔 적어도 금남로의 다섯 군데 다방 손님들이 내게 구두를 닦고 있었던 말이야. 그런데 그땐 정말 대단했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마구 두들겨 맞아 피를 뿌리며 쓰러지기 일췌였으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게 구두를 닦고 간 신사 양반이 정신을 잃고 질질 끌려가는 것도 보았어. 윤이 반들거리는 구두가 돌길에 긁혀 마구 망가뜨려지고 있었지. 너희는 모두 아직 젖먹이 때였겠구나.”(58쪽, 강조 표시는 필자)

3) <여적>, 『경향신문』, 1994.1.7.에서 재인용.

4) <계엄사 발표 광주사태>, 『동아일보』, 1980.5.31.

‘5·18’을 ‘SF’와 연결하는 상상력은 1980년대 한국에선 불가능했다. SF가 멸칭(蔑稱)으로 통용되며 ‘공상과학’의 동의어쯤으로 이해되던 시기였고⁵⁾, 둘을 잇는 시도를 정부의 검열보다 모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80년 광주 SF’의 발현까지는 정치 사회의 구조 변동 과정이 상당 기간 이어져야 했다.

‘80년 광주’의 상흔을 직시하는 것은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문학과 창작계 전체에 큰 용기가 필요한 과제였다. 대중 매체를 장악한 국가 검열 권력의 영향력은 지대했고 집요했다.⁶⁾

최초의 5·18 영화인 장산곶매의 〈오! 꿈의 나라〉(1988)는 제작 직후에 필름을 압수당할 뻔했다.⁷⁾ 영화법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던 뒤인 2009년에서야 이 영화는 대중과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문학계에선 임철우의 〈동행〉(1984), 〈직선과 독가스〉(1985)을 시작으로 ‘80년 광주’에 대한 심적외상(心的外傷)을 포착한 소설부터 발표되었다.⁸⁾

5) 한가지 예를 들자면, 민예총 대변인이자 마당극 연출가 등으로 활약한 임진택은 1985년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소위 SF라고 불리는 공상과학영화”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실의 실제 가능성 위험을 직시하기는커녕 “허황한 SF류의 영화나 연극은 당면한 인류절멸의 위기를 낭만적으로 은폐하는 역작용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거 할 만큼 한가한 시대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인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세계는 주제와 소재가 따로 분리될 만큼 한가한 세월이 아니라 이미 주제와 소재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엄중하고도 급박한 위기, 극한상황 그 자체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임진택, 〈예술의 주제와 소재〉, 『동아일보』, 1985.3.16.

6) 이영미,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구전, 마당 — 1970, 80년대 예술문화운동의 매체들과 그 의미〉, 『서강인문논총』 제35권, 서강인문과학연구소, 2012 참고.

7) 〈〈오! 꿈의 나라〉 탄압 중단하라〉 영화인 100명 문공부에 촉구, 『동아일보』, 1989.01.20., 접속일: 2024.10.27.,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890120&mode=19890120%2F0001587793%2F1>.

8) 박숙자, 「5·18과 서사: 고통, 신체, 재현 — 임철우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6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최다의, 「오월 광주: 유령과 연대하기 — 임철우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8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참고.

‘5·18’의 전체 모습과 전개 과정을 촘촘히 형상화한 성과는 르포의 영역에서 먼저 발표됐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기록물〈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이다. 이 책은 1984년의 ‘유화 국면’이라 불린 자유화 시기 이후에 나왔다.⁹⁾ 이 시기에 이르러 시민사회 내 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1985년 2·12 총선거의 결과로 제도권 내의 야당인 ‘신민당’이 등장했으며, 직선제 개헌이 쟁점화된 끝에 87년 6월 항쟁이 전개된다.

‘5·18 상상력’의 문학적 결실도 이 흐름 속에서 꾸준히 발표된다. 격변으로 치달던 이 시기 정치 지형은 집단적 상상력의 구조 변동과 연동한다. 실현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상태보다 ‘변혁의 가능성’이 조금씩 실현되는 단계에서 문학적 형상화의 여지는 넓어진다.

윤정모의 〈밤길〉(1985),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1987), 이영옥의 〈남으로 가는 헬리콥터〉(1987), 김중태의 〈모당〉(1987), 정도상의 〈십오 방 이야기〉(1987)가 이 시기 상상력의 구조 변동에 힘입어 창작된 작품이다. 그럼에도 5·18 광주에 대한 직접 접근보다는 상징과 정신질환의 수법에 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홍희담의 〈깃발〉(1988)은 앞에 열거한 소설들에 비해 심리 소설적인 한계를 넘어 현장성을 획득한 예외적인 성과로 평가된다.¹⁰⁾

그럼에도 1980년대 남한의 ‘5·18 상상력’은 광주항쟁의 실제적 진실을 직시하며 거시적 스케일과 에너지를 담은 장편 소설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한 장편 소설은 1997년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었다. 그 작품이 임철우의

9)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회보』 제24권 1호, 한국정치학회, 1990, 65-70쪽.

10)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권, 한국현대문학회, 2010, 452-453쪽.

〈봄날〉이다. 북한에서는 1988년에 김재학의 〈열흘 낮 열흘 밤〉이라는 장편 소설이 발표되었으니 많이 늦었다. 이 시간차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80년 광주’ 앞에서 국가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애도, 기억, 치유, 기념화될 수 있는 집단 기억의 형성 과정이 공공연히 방해받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5·18 상상력’은 국가 권력이 전유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가치 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¹¹⁾ 적어도 전두환의 5공화국에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항쟁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광주학살의 또 다른 책임자인 노태우가 당선된다. 6공화국은 지지층을 확장해야 했다. 87년 개헌 헌법 이후의 대한민국에선 5년마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직선제 대통령의 정당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과의 차별화에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¹²⁾ 김대중과 김영삼을 지지했던 시민사회로부터도 지속 가능한 지지를 일정 부분 끌어내야 했다. 그것을 가능케 할 핵심 키워드는 ‘5·18’과 ‘통일’이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을 ‘80년 광주’와 ‘통일’과 관련해 긍정적 인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이벤트가 광주 5공 특위 청문회(1988.11.2-1989.12.31)와 7·7 선언(1988.7)이었다.¹³⁾

11)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김인중·유희수 외 역, 나남, 2010, 31-69쪽
참고.

12) 조희연,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2008, 167쪽.

13)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료 총서 : 14권』,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475쪽.



〈사진 1〉 경향신문 1993년 1월 1일 1면

이 이벤트의 대미는 199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신문 1면이었다.(사진 1) 5·18 학살자 전두환과 심판자 노태우의 (對比될 수 없을 거라 믿었으나 가능해진) 대비, 비리 정권의 최고책임자와 '통일의 轉機'를 이룩하는 '희망 사회'의 지도자 노태우가 같은 면에 자리했다. 이것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5·18 상상력'의 서막이었다.¹⁴⁾

14) 13대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청문회는 야당이 주도한 중요한 정치적 성과였고 5·18 문제를 본격적으로 담론장에 꺼내놓을 수 있었던 전환점이기도 했다. 이 성과가 함부로 폄훼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태우 정권과 민정당은 '청문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벤트'로 전유할 수 있었다. 13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이 1990년에 '3당 합당'으로 다시 거대 여당 주도의 국회로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기 정치 지형의 구조적 한계에 내재한 필연적 결과였다. 강원택,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1호, 한국정당학회, 2012 참고; 박찬표, 「제13대 국회의 원내 균열·연합 구도: 3당합당 이전 26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30권 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참고.

3. '1993년'이라는 전환점과 SF의 만남

'5·18' 10주기인 1990년은 광주항쟁 관련 서적이 다시 주목받은 해이기도 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성과가 정해구·김창진·김동욱·김준·최장집 등이 참여한 <광주 민주항쟁 연구>(사계절, 1990), <광주 오월 사료전집>(풀빛, 1990), 구술 채록집인 <광주여 말하라 : 광주 민주항쟁 증언록>(실천문학사, 1990)이다.

이 중 <광주여 말하라>는 후술하게 될 채영주의 <시간 속의 도적>(1993)의 광주 뒷골목 청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많다. <광주여 말하라>에는 지식인 교수만이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 여성, 군인, 전경, 요리사, 방위병, 구두닦이, 페인트공, 15세 중학생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겼으며, 개인사에 담긴 '80년 광주'가 구술되어 있다.¹⁵⁾

학술과 출판계에서 다채로운 성과가 나온 해였으나, 전두환은 1990년은 물론이거니와 백담사에서 장장 4년을 머물며 법의 심판을 피했다.

상황이 급반전한 것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서부터다. 30년 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의 군부 실세들은 군과 사회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이 결심하면 문민 대통령을 축출하는 제3의 군부 쿠데타가 가능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남한은 '5·18 상상력'을 장편이 될 만한 거시적 스케일과 에너지로 분출하기 어려운 창작 환경이었다.

김영삼은 취임 11일째 되는 날인 1993년 3월 8일부터 같은 해 4월 15일까지 4차에 걸쳐 하나회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취임 석 달도 되지 않

15) 이 책은 민주화 운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하기 위한 중요 자료집으로 여전히 중요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정근식,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32쪽 참고.

아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불가능한 나라로 전환됐다.¹⁶⁾ '5·18'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창작의 조건도 함께 도래했다.

'5·18 민주화 운동 담화문'이 발표된 것도 1993년 5월 13일이었다.¹⁷⁾ 이 담화문에서 '5·18'은 대통령의 음성으로 '광주사태'가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불린다. 노태우 정권에선 한계가 분명했던 '5·18 상상력'의 국가 전유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회 숙청', '쇠말뚝 뽑기 사업',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등의 일련의 조치는 '역사 바로세우기'로 통칭하며 문민정부의 치적 사업으로 홍보됐다.¹⁸⁾ 바로 이 시기에 SF의 상상력이 '80년 광주'를 만나게 된다. 첫 비등점이다.

SF는 허황한 공상적 서술, 이미지의 개연성 없는 나열이 아니라 현실의 조건, 구성 요소로 실체화된 것들의 재조합을 통하여 있을 법한 미래, 현재, (존재했을 법한) 과거를 그린다. SF를 과학기술에 근거한 유토피아/디스토피아의 미래를 그리는 서사로 정의하는 것은 이 계열 서사의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과학기술보다는 오히려 외삽법(Extrapolation)이야말로 SF와 SF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SF 비평가이자 영문학자인 데이비드 N. 새뮤얼슨(David N. Samuelson)은 1993년 논문에서 SF에서 외삽법의 결정적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과학적, 역사적 과정의 외삽은 같은 것을 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자, 상호 보완적인 활동이다. 세계 구축과 예측은 또 다른 의미에서 통합된다. 다음 중 하나를 상상해 보자. 대안적 미래나 외계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미

16) 김석준, 「한국의 정치개혁」,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1호, 한국정책학회, 1995, 16-17쪽.

17) 박은정,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1995, 176쪽.

18) 김성배 외,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 한국행정연구원, 2014, 72쪽.

지의 시공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SF의 모든 '세계'는 상상된 인공물,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모습이나 가능성에 대한 모델이다.¹⁹⁾

과거, 현재, 미래를 구성하는 관찰값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원래의 관찰 범위를 넘어서는 변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 외삽법이라는 수학적 사고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관찰값 사이의 관계는 시공간의 벡터를 전제로 한다.

서구 근대 문학에서 SF와 역사소설이 프랑스 혁명기의 쌍생아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을 전유하여 SF와 역사소설의 동시적 발생 기제를 분석한 영미 비교문학자인 칼 프리드먼(Carl Freedman)의 저서에서 계몽된 바 크다.

SF 소설과 역사 리얼리즘 소설은 역사적 정체성과 역사적 차이에 대한 루카치의 변증법을 포함하며, 둘 다 거의 같은 역사적 매트릭스에서 생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두 장르 모두 19세기 초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갈 무렵, 즉 역사성 자체가 처음으로 파악(또는 발명)되던 시기—물론 산업혁명과 응용 자연과학의 진군이 새로운 활력과 가속도를 내던 순간이기도—에 월터 스콧과 메리 셸리의 작품에서 명백히 그 자체로 등장한다. 이것은 물론 우연이 아니다. SF 소설과 역사소설은 모두 가장 전형적인 현대적 장르에 속한다.²⁰⁾

19) David N. Samuelson, "Modes of Extrapolation: The Formulas of Hard SF", *SFStudies*, Vol.20, No.2, 1993, p.232. 1959년에 창간된 SF와 판타지에 대한 최초의 학술 저널 이름도 〈Extrapolation〉이다. 〈The Evolution of Science Fiction〉(1953)의 저자인 Thomas D. Claerson가 창간했다. 이 저널은 지금까지 연 3회 발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SF 학술 저널의 하나다.

<https://www.liverpooluniversitypress.co.uk/journal/extr>

20) Carl Freedman, *Critical Theory and Science fiction*, Wesleyan University Press,

역사소설과 SF는 같은 질문을 한다. 혁명의 시대에 외삽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다가올 현재, 미래는 무엇인가?

1993년 3월 채영주의〈시간 속의 도적〉(열음사, 1993)이 출간된다. '80년 광주'와 'SF'를 결합한 최초의 시도다. 이 소설의 1쇄 발행이 1993년 3월 31일이었다. 2쇄를 찍은 것은 다음 달 4월 28일이었다. 이 시기가 4차에 걸친 하나회 숙청 기간(1993.3.8—4.15)과 겹친다는 것은 볼수록 흥미롭다.

〈시간 속의 도적〉의 작중 주요 시간대는 1993년 당시 기준으로 近未來인 1998년이다. 이 시대는 1993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삽법적으로 벡터의 노름이 작아,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시공간이다.

화자인 '나'는 우유 배달원이다. 그는 음식점 웨이터, 구두닦이, 공사판 일꾼, 주방장과 자주 어울린다. 이들은 모두 광주 뒷골목의 가난한 사내들이다.²¹⁾ 그들은 어느 날 주방장 노장윤으로부터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다. 2044년의 미래인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세상이 종말로 치닫는 파국의 뿌리가 80년 5월 광주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1980년 5월 광주, 진압군의 총격에 아버지를 잃고 가족과 헤어진 남자 상욱이 있었다. 여기서 연쇄되는 이야기는 얼핏 작위적으로 굴절한 서사처럼 읽힐 수 있으나, 〈시간 속의 도적〉의 외삽법이 남한과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맞대어 보고 있음을 드러낸 특이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Las

2000, p.50.

21) 『시간 속의 도적』은 열려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억압된 상상력의 소설이다. 엘리트 상층 계급 남성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상상력은 단혀 있다. 광주 뒷골목 다섯 청년에 비하면, 정보국 정예 요원이나 천재 해커는 핏줄도 몰라보고 몸쓸 짓을 하거나, 자기 재주를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쓸 마음이 집조차 못 갖춘 기대가 안 되는 존재들이다. 세계 구원을 위한 모험을 여성이 수행할 수 있다는 상상력도 결핍되어 있다.

Madres de la Plaza de Mayo)'의 손자 찾기 운동이 반영되어 있다.²²⁾

1976년 아르헨티나 군부 쿠데타 이후로 1983년 민정 이양 때까지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학살됐다. 피해자들은 군·경찰에 연행될 당시 임신을 하고 있거나 1-4세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 아이들의 상당수가 자녀가 없는 군 장교나 경찰 간부의 자식으로 입양됐다.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5월 광장 어머니회의 활동은 1988년부터 전개되었으나, 아이들의 친부모를 찾아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사는 2021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이 소설이 참조한 아르헨티나 문제는 상육의 가족 관계를 둘러싼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시간 속의 도적>은 한반도에서 가능한 미래의 역사를 대체로 비관하는 소설이다. 외삽법은 개인성 높은 유사 선례, 현실의 조건과 한계 요소를 배제하고 공상적으로 미래를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미래의 대한민국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전두환'이었던 비델라가 198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0년 사면되기까지의 과정은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됐다. 12·12 군사 반란, 5·17 내란, 5·18 학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은

22) 쿠데타와 대량 학살, 아동 납치의 주범이었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레돈도 대통령은 1985년에 기소되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5년 동안 수감되었을 뿐 다음 정권이었던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으로부터 1990년에 사면받았다. 전두환에 대한 처벌이 한국에서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례로 한국에서도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한 국내 보도는 1988년 이후로 한국에서도 비교적 꾸준히 이어졌다. 비델라 정권 시기의 아동 납치를 소재로 한 영화인 루이스 푸엔조 감독의 <오피셜스토리 La Historia Oficial>(1985)도 1989년에 한국에 정식 개봉했다.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시를 모은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실천문학사, 1992)가 이종명의 번역으로 출간된 바도 있다. 관련하여 다음 논문을 참고했다. 박구병,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추악한 전쟁' 청산의 최근 동향」, 『한국제노사이드연구』 창간호, 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105-116쪽; 박구병,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9권 2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6, 69-96쪽.

김영삼 정부 말기였던 1997년 12월에 사면을 받았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보자.<시간 속의 도적>에서 상욱을 입양한 이는 80년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김세진 소령이었다. 그는 훗날 국가안전보장국 부국장이 된다. 상욱도 국가 정보국 정예 요원이 된다. 이때가 2003년이다.

상욱은 반정부 단체인 '표적동맹'의 민욱을 쫓는다.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친근한 정이 느껴진 해연을 강제로 겁탈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 셋이 모두 광주에서 헤어졌던 일가족 삼남매였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우는 친형을 형장의 이슬로 죽게 한다. 여동생 해연은 결국 형의 아이를 낳는다. 이 아이가 지구를 파괴하는 천재 해커 김재익으로 자란다. 김재익이 세상을 끝장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출생의 비밀이 담긴 해킹 데이터를 읽은 뒤였다.

누군지 모를 미래인은 1998년의 남자에게 이 사연을 전하며, 파국을 막을 외삽법적 해법을 알려준다. 해연이 2003년에 근친상간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전기준'과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리멸렬한 좌충우돌 끝에 실패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 시도였다. 이들은 또 다른 역사의 변수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반정부 단체인 '표적동맹'이 애초에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표적동맹은 북한을 체제 내 식민지로 격하하는 남한 연방제 통일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됐다. 작중 남한의 통일 정책은 핵폐기장, 공해산업시설, 쓰레기 매립지 등을 북한에 옮기고, 북한 인민의 노동력을 값싼 임금으로 착취하려는 흥계(凶計)다. 이런 통일 뒤에 벌어지는 미래는 '80년 광주'보다 더한 비극의 씨앗을 틔우게 된다. 그래서 광주 뒷골목의 다섯 사내들은 표적동맹 이전의 표적동맹이 되어 미래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들이 광주의 비극적 역사에 분노하는 광주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80년 광주'가 생

겨나는 것을 막는 일에 헌신적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또 하나의 광주가 되어 가고 있었다. 팔시받는 땅, 낙후된 땅, 일부 동족의 이기적인 성장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당해야 하는 땅. 어쩌면 광주보다 더 지독한 광주가 되는 셈일지도 몰랐다. 이대로 십여 년이 더 흐른다면, 그래서 북한의 통치 체제가 흔적 없이 남한의 체제로 흡수되어 버린다면 북한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들은 다시 독립을 원하게 될지도 모르리라, 광주 공화국을 원했던 80년대의 광주처럼.²³⁾

광주 뒷골목 청년들은 프랑스 관현악단의 광주 공연장에 뛰어들어 통일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폭로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다. 이들 덕분에 미래가 정말 바뀌었는지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지방 공연장에서 생목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바뀔 미래일 리 없다.

이 소설은 (문민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한) 노태우 정권 시기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광주 5공 특위'에 공통으로 내재한 한계점을 지적한다.²⁴⁾ 남한 자본주의의 약탈적 체제에서 전개될 긍정적 미래가 대체 뭐란 말인가? '광주보다 더 지독한 광주'로 지칭되는 나쁜 미래를 구하기 위해선 총체적 체제 전환을 가능케 할 '역사의 변수'를 겨냥해야 한다.

하지만〈시간 속의 도적〉의 상상력은 여기서 멈춘다.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달리 '상상력'은 마냥 자유롭지 않다. 어떤 상상력이든 그 발현은 또 다른 억제된 역량의 이면이다. 우리는 상상하는 동시에, 상상하지 못한다. 이 기제는 지배 체제의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⁵⁾〈시

23) 채영주, 『시간 속의 도적』, 열음사, 1993, 126쪽.

24) 이시중,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추진과정 연구」, 『통일인문학』 제98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184-194쪽.

간 속의 도적〉 역시 상상력은 발현되는 동시에 억압되어 있다.

파국의 미래를 알려준 미래인은 어째서 1998년 광주 뒷골목 사내가 아니라, 1980년 광주의 그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선택은 '5·18 상상력'을 구성하는 어떤 기제를 드러내고 있을까? 2044년에 이르렀음에도 미래의 한국인에게 '80년 광주'는, 바꿀 수 있는 역사의 변수가 아니라 불변의 상수다. 〈시간 속의 도적〉의 서사가 성립되는 이유는, 1980년 5월 이후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가장 개연성 높은 한국 역사성의 경로들은 (축복받지 못한 해연의 사생아처럼) 모두 다 '80년 광주'의 굴레 속에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인이 '80년 광주'로 메시지를 보내 미래를 구원할 시도조차 못 한 것은, 악당의 출생을 막는 수준의 수습을 아득히 넘어서는 일이 된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 양쪽으로 가능했던 역사의 행로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80년 광주'를 없던 일로 해체하는 상상력이 아니라 그것을 상수로 끌어안고 다른 역사의 경로와 그 속의 변수를 모색한 소설이다. 궁극적으로 남한 자본주의 비판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시간 속의 도적〉의 시간 여행 좌표 선택은 일리가 있다. 뒤에 소개할 강유한의 〈리턴1979〉가 〈시간 속의 도적〉과 정반대 선택을 하고 극우 보수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과 대비된다.

25) Capodivacca S, "Beyond Imagination: Deleuze and the Real Virtua", *Aesthetica—preprint*, 2023. <https://han.gl/1EHAt>

4. '80년 광주'와 'SF'를 잇는 새로운 매개자

같은 해(1993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매체에서 '80년 광주'를 'SF'와 연결하는 시도가 있었다. 1991년 1월에 창간해서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됐던 프라모델 전문 월간잡지 <취미가>(호비스트)였다.

이곳은 밀리터리와 자동차, 각종 SF 메카닉 모형과 일러스트를 두루 소개하는 매체였다. 이 잡지는 출판사 이름부터 일본 서브컬처 종합출판인 Hobby Japan을 의식했다. 이곳에서 1969년부터 발행한 프라모델 분야의 대표 잡지가 <Hobby Japan>이었다. <취미가>의 롤모델이 된 매체다.²⁶⁾

이런 부류의 잡지에서 게재하는 장르 소설은 매회 연재하여 종결에 이르는 방식보다는 모형 제작에 참고할 핵심 세계관 설정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장면만을 극화한 짧은 서사(소설, 만화, 일러스트 혼재)를 보여준다. 일반 연재 소설처럼 완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설정을 창작 프로모텔로 완성하면, 그것으로 독자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문화다.

이 콘셉트를 따라한 것이 <취미가>의 '공상과학/S.F' 카테고리다. 채영주의 <시간 속의 도적>이 출간된 같은 달에 발행된 <취미가> 1993년 3월호에서 김세량은 <ARMOR'S STORY>를 발표한다. 다음 호인 4월호까지 단 2회만 실렸고, 모형잡지 특유의 문화에선 부족한 시도로 여겨지지 않았다.

26) Hobby Japan 출판사업부 홈페이지. 접속일: 2024.10.27., hobbyjapan.co.jp/business/index.html#publication



〈사진 2〉 김세량의 〈ARMOR'S STORY〉가 게재된 『취미가』 1993년 3월호

〈ARMOR'S STORY〉는 '80년 광주'로부터 200년 뒤인 서기 2280년 외계 식민지가 배경이다. 도시국가의 이름은 에이-락(AE-ROK) 공화국이고, 샤인-시티(Shine-City)라는 지역이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광주(光州)를 빗댄 장소다. 에이-락은 나파즈(NAPAZ)의 침공으로 36년간 식민 지배를 겪었고, 독립 이후에도 에이-락 남단 '한라'에서 무장 항쟁이 벌어져 대학살의 비극을 겪었다. 2348년 4월 3일에 있었던 일이다. 낮익은年月日이다.

작가 김세량은 이 작품의 이야기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필자는 ARMOR라는 소재가 뛰놀 수 있는 배경으로 '역사'를 선택했다. 그래서 A.S의 로고 위에는 A history of ARMOR(아머의 역사)라는 설명을 달아 놓았다. 필자가 멋있게 한국형 SF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A.S의 배경 역사가 바로 〈한국의 현대사〉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사 중 학교 교과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숨은 역사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또한 일부 왜곡되었던 부분들도 바로 잡아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현대사 중 매회 해당 스토리의 배경이 된 부분들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AS는 단순히 감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내용

이 아닌 바로 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며 공감할 수 있는 역사 드라마로 구성하고자 한다.²⁷⁾

에이-락은 '선글라스·피스'와 '노·헤어' 장군의 쿠데타로 연달아 군정을 겪어야 했다. 각각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입되는 캐릭터다. 아머스 스토리 제1화(취미가 1993년 4월호)는 '80년 광주'를 SF 세계관에 거울처럼 대입한다.

5월 18일, 어김없이 에이-락의 남단인 샤인 시티에도 아침은 밝아왔다. 그러나 다른 날과는 분명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 시내 곳곳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대열이 끊이지 않던 샤인 시티 주변 도로에는 교통이 차단된 채 장갑차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순식간에 사태를 감지했고 용감한 일부 학생 200여명이 자신들의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군대는 물러가라!' 군대의 번득이는 총구 앞에서의 이 외침들은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유일하게 군대에 저항하는 항거였다. 당돌하다 할만큼 무모한, 그러나 힘있는 표호였다. (...중략...) 이날 첫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는 말 못 하는 농아자로 자신의 입장을 군인에게 설명하려다가 더욱 심하게 얻어맞아 결국 숨지고 말았다. 말 못 하는 민중들에 대한 학살의 서곡과도 같았다. 이튿날 새벽, 전날의 참상을 대변하듯 군데군데 피로 얼룩져 있었고 주인을 잃은 신발과 찢어진 옷가지가 뒹굴고 있을 뿐 아직 인적이 없었다.²⁸⁾

김세랑 작가는 대전 태생의 90학번 홍익대 미대생이었고, 대학 시절에는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경험이 없었다. 80년대 오월 문학과도 거리가 멀

27) 김세랑, <ARMOR'S STORY>, 『취미가』 1993년 3월호, 하비스트, 94쪽.

28) 김세랑, <ARMOR'S STORY : 1화>, 『취미가』 1993년 4월호, 하비스트, 99-100쪽.

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 모형 잡지와 SF 만화였다.

그리고 이런 체험 역시 주요했다. 그가 전국 프라모델 경연대회를 준비하던 1990년에 '80년 광주'와 'SF'를 잇는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작품이 MBC에서 송출된다.

1990년 4-5월에는 KBS가 방송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7월에는 MBC와 기독교방송, 평화방송도 연대 제작 거부 투쟁이 있었다.²⁹⁾ 편성표의 빈 자리는 외화와 애니메이션이 줄줄이 편성됐다. 특히 일본 OVA 애니메이션을 이례적으로 들여왔다.

이 시기 MBC 편성 국장이 정병웅이었다. 1989년 12월 31일에 MBC 편성 국장으로 임명됐는데, 그전에는 부산 MBC 편성 국장이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현해탄 건너 방송 동향에 밝았고, 수준 높은 해외 방송물을 경험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예민한 인물이었다.³⁰⁾

KBS 4월 파업 사태가 5월 18일에 끝나고, 7월에 전개됐던 MBC 등의 연대 파업도 흐지부지 3일 만에 끝났다. 하지만 흥미진진한 방송 편성은 계속됐다.

그해 8월 광복절 특집 만화로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달로스 달로스> (1983)가 방송된다. 이 작품에 묘사된 달 식민지 독립 투쟁은 누가 봐도 1980년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 기본 설정부터 메카닉에 이르기까지 김세랑의 <ARMOR'S STORY>와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29) 김금수, 『한국 노동 운동사: 민주화 이행기 의 노동 운동, 1987-1997』, 지식마당, 2004, 245쪽 참고.

30) 부산 MBC 시기의 인터뷰다. “일본 TV의 영향 탓인지 이 지역 시청자의 수준은 비교적 높다. 서울 중심 방송의 릴레이만으로는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동아일보』, 1981.07.11.

〈사진 3〉 1990년 8월 15일 방송편성표.

〈달로스〉가 방영된 시간은 노태우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방송된 뒤인 10시 40분부터였다. 이날 노태우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다 함께 열고 있다”고 연설했다.³¹⁾ 이 연설 직후 방송된 〈달로스〉는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를 떠올리게 하는 공공로운 편성이었다. 전공투 마지막 세대였던 오시이 마모루는 그 시기의 가투(街鬪) 감성을 담고자 했는데, 한국 시청자가 볼 때는 생각지도 못한 ‘80년 광주 SF’였다. 한국어 더빙까지 되어 있었다.

1990년은 지상파 평균 시청률이 20%대였다. 동 시간대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80년 광주’와 ‘SF’를 연결하는 ‘5·18 상상력’의 놀라운 예시를 시청한 셈이었다. 채영주의 〈시간 속의 도적〉과는 다른 경로로 형성된 서브컬처 마니아의 정치적 상상계였다.³²⁾

31) 노태우, 『한국의 대통령 연설문 :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씨익북스, 2020. 17쪽.

32) 지금의 남성 서브컬처 문화가 다분히 우경화되고 보수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5. 밀레니엄 이후, 다른 우주 사이의 '80년 광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를 지나는 동안, '5·18'은 국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추모 문화와 장소를 안정적으로 갖게 된다. '1993년 전환기'와 비교하면 애도의 서사와 의례가 일반화되면서 개별자들의 고유한 기억과 상상력의 발동이 상대적으로 평준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³³⁾ '80년 광주'와 'SF'의 접목 역시 눈에 띄는 성과가 적었다.

'5·18 상상력'은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권(2008-2013) 시기에 분노의 활력을 찾는다. 2010년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에 새로운 '5월의 노래'를 제정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엄청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이 계획은 끝내 철회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2012-2017)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싼 문제가 재점화됐다. 찬반 양쪽 모두 국가 공식 의례에서 무엇을 더하고 뺄 것인가를 따지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5·18 상상력'을 우익의 관점에서 갱신하는 강유한의 대체 역사소설 <리턴1979>가 이 시기(2007-2011)에 연재된다. 이 소설은 5·18 비극의 서막이었던 12·12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전제로 전개된다.

주인공 김승필은 타임슬립으로 12·12가 벌어지기 보름 전인 1979년에 떨어진다. 원래 세계에선 50대였으나, 타임슬립 후엔 19살이 되었다. 그는 역사를 바꿔서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12·12를 막고, 최규하와 장태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군사 정부 출범을 돕는다. 미래를 알고 있는

33) 박경섭, 「한기역에서 기념비로, 운동에서 역사로: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5·18의 물신화와 성화(聖化)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4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8 참고.

남자 김승필은 새 정부의 책사이자 예언가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신념과 열정을 갖고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 개혁을 밀어붙인다.

5·18의 역사적 잘못만 범하지만 않았어도 (무려 유신헌법 체제로 운영 되는) 군부 정권의 역사가 민주 정부보다 유능했을 거라는 설정이 4년에 걸친 연재 내내 일관되게 지켜졌다. 웹소설계의 손꼽는 흥행작 중 하나다. <시간 속의 도적>의 미래인이 '80년 광주'를 바꾸지 않고, '80년 광주' 이후의 타임라인을 택한 것과 비교된다.

<리턴1979>는 1979년 이후의 '오점 없는 보수 우익의 역사'를 상상한다. 유신 체제를 선용(善用)하여 단군 이래 최대 개혁 성과를 낸다. 인신매매 등의 사회 범죄부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핵무장까지 완료하는 역사다. 연재 당시 독자들의 댓글도 열광적이었다.³⁴⁾

<리턴1979>에서 하나회 해체는 1993년이 아니라 1979년 12월에 단행된다. 김승필은 검거된 전두환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준다. 다른 타임라인 세계의 전두환이 저지른 광주의 비극을 알게된 <리턴1979>의 전두환은 흐느끼며 전율한다.

“정말... 내가... 그런단... 말인가?”

“물어보겠습니다. 피로 범벅인 채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 하고 싶지 않다.”³⁵⁾

34) 일부 소개하면, “울분과 눈물이 치솟아 오르는군요.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만, 우리나라를 부끄럽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박통의 호불호를 떠나서 미래의 경험을 토대로 편승하거나 작은 즐기는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역사의 큰 줄기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파생력이 여파어마합니다. 조악한 예로, 만약 레이건을 당선 못 하게 했다면 소련이나 클린턴이 누린 미국의 경제 호황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견회를 죽이면 삼성의 반도체가 있을 수 있거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등이 있다.

이 소설의 세계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논쟁은 원인이 되는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영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전제 때문에 1979년 이후의 진보 민주 진영의 역사는 모조리 소멸했다.

군부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미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주인공의 도움으로 모범답안이나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의 정책을 펼친다. 이 시리즈의 피날레는 최규하 대통령이다. 그는 반개혁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던지고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오른다.

“한마디로 수정자본주의를 하자는 건가?”

“아닙니다. 독재를 하자는 거죠.”

“독재라, 어차피 유신헌법이 독재 아닌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독재할 바에야 화끈하게 하고 물러나셔야죠.”

“하, 나를 아주 죽일 놈을 만드는구면.”

“십 년 후에는 각하를 민족의 영웅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것만을 생각하십시오.”³⁶⁾

그는 우익의 인정 욕망을 반영해 수정 보강된 박정희의 에피고넨에 불과하다. <리턴1979>의 연재가 종료되고 1년 뒤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다.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2017-2022)가 들어서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멈출 수 있었다. 2017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다.

35) 강유한, 『리턴1979 1권』, 스카이북, 2011, 129쪽.

36) 강유한, 위의 책, 367쪽.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³⁷⁾

이 시기에 김희선의 <무한의 책>(현대문학, 2017)이 발표된다. 김희선의 <무한의 책>은 채영주의 <시간 속의 도적>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종말을 막기 위한 시간 여행 이야기다.

<시간 속의 도적>에선 정체불명의 ‘미래인’이 보낸 메시지를 받고 광주 뒷골목 청년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분투한다. 하지만 이 소설에선 미래가 정말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중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단일한 시간선이 그대로 존속한다. ‘80년 광주’의 비극을 바꾸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일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시간 속의 도적>으로부터 24년 뒤에 발표된 김희선의 <무한의 책>에서도 ‘80년 광주’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역사적 사건은 그대로이지만, 한 사람의 개인사만 바뀐다.

<무한의 책> 속의 임박한 종말은 암흑물질로 이뤄진 소행성 충돌로 예정된다. 지구의 침단 장비로는 이 사실이 전혀 관측되지 못했다. 위기를 알린 것은 지구 곳곳에 느닷없이 출현한 공룡 형상의 ‘신’ 종족이다.

‘신’ 종족이 지구를 구할 구원자로 선택한 이는 미국 소도시에서 소시지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재미교포 1.5세 박성철(스티브)이다. 그는 2016년에 살고 있고, 시간 여행을 해서 만나야 할 목표 대상은 1958년 용인에 있

37)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전문>, 『한겨레신문』, 2017.8.15. 접속일: 2024.10.27., <https://han.gl/bZ7rM>

던 자신의 아버지 박영식이다. 그를 2015년 용인으로 옮겨놓으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다른 시간선의 존재가 역사에 개입하면 시간선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분기(分岐)된다. 박성철은 1958년 이후의 시간선을 돌로 쪼갬고, 박영식은 2015년 이후의 시간선을 돌로 쪼갬다. 분기된 다른 시간선의 세계에선 소행성의 접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박성철이 이 과업을 맡은 이유는 불운한 삶을 살다 가족을 고통 속에 밀어 넣은 그의 아버지 박영식을 구하기 위해서다. 가족을 살해하려는 아버지를 막으려다 부친 살해자가 된 박성철 자신을 구하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기도 했다. 살인죄는 성철의 어머니가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다.

이들父子는 일평생 정신병에 시달렸다. 1958년 용인에 버려진 고아였던 박영식은 불우하고 거친 삶을 살다가 군에 입대한다. 하필이면 '80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였다. 술에 취해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영식은 무고한 양민을 마구 죽이고 같은 부대원까지 쏘 죽인다.

아니, 아버지는 오래전 그때, 광주로 내려가는 트럭 안에서부터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걸지도 모른다. 맨 정신이 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할 순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디디는 랩을 하듯 몸을 흔들며 내 말에 반대했다.

“아니, 그럴 때 사람은 절대 미치지 않아
오히려 정신이 더 말뚱말뚱해지지
그러니까, 잡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머릿속엔 피와 살덩이 튀는 소리뿐인 거야
푹 찌르고 쑥 빼내서
또 찌르고 쑥 빼내는 거지
그러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라고.”³⁸⁾

38) 김희선, 『무한의 책』, 현대문학, 2017, 235쪽.

그럼에도 ‘빨갱이’를 죽였던 것뿐이라며 흐지부지 사건이 봉합됐다. 이 사건 이후로 박영식은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미쳐간다. 가족들을 데리고 무작정 미국으로 이민을 한 이유도 한국에 사는 한 견딜 수 없는 기억으로부터 헤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평양을 건너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의 광증은 미국에서 더 악화한다.

박성철은 가정폭력과 부친 살해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디디’라는 다중인격과 친구로 지내는 중증 정신질환자다. 이 소설의 모든 설정과 전개가 성철의 해리성 다중 인격 장애에서 비롯된 환상과 공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해석마저 가능하다.³⁹⁾ 〈무한의 책〉은 문학, 영화, 드라마, 회화, 가요, 과학 도서가 무수히 인용되고, 글쓰기 형식도 소설, 희곡, 신문 기사, 블로그 풍의 에세이 등으로 연거푸 변주한다.⁴⁰⁾ 다양한 글쓰기와 미디어 탐식은 이미 그의 생활에 내재한 평행우주 체험이었다.

온갖 잡스러운 텍스트들의 브리콜라주가 점층될수록 성철은 ‘신’이 부여한 임무의 중요성에 몰입할 수 있게 됐고, 이 일이 자신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신’은 한 번에 단 한 사람만을 시간 여행시킬 수 있었다. 그 이상의 역량은 ‘신’에게도 부재했다. 박성철은 1958년의 고아 박영식을 2015년의 용인으로 옮긴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보호 중인 미아 박영식을 친척 행세를 하는 한 노인이 데려간다. 그는 아버지를 미래로 보낸 뒤 1958년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박성철이었다. 2015년 이후에도 고아로 살게 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은 하루하루 일상의 속도로 시간을 넘어 2015년에 도착

39) 아즈마 히로키,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이은미 역, 문학동네, 2007, 195-199쪽 참고.

40) 복도훈, 「이야기의 클리나멘, 클리나멘의 이야기 — 김희선의 《무한의 책》에 대하여」,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90-102쪽 참고.

했다.

여하튼 그때부터 난 지나가는 모든 노인들을 한 번씩 뒤돌아봤어요. 얼굴에 시간이 새겨진 사람들.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발자국씩 걸어온 그들. 삶 자체가 기나긴 시간여행이었을 그 많은 노인들. 그들 중 어느 누군가가 당 신일지도 모른단 생각을 하며, 그들의 텅텅한 체취, 지친 듯 체념한 얼굴빛 과 나무토막처럼 거칠어진 반점투성이 손을 유심히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한 노인이 빠르게 다가와 반갑게 내 손을 잡으며 “고마워. 내 노트를 읽어줬군!”이라고 외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스티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난 어쩌면 내가 당신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마지막 지점을 알아냈다는 뜻이죠.⁴¹⁾

〈무한의 책〉은 시간 여행의 목적 좌표와 시간선 분기만이 아니라 시간 여행의 속도를 함께 고민하게끔 한다. 이 소설은 박성철이 1958년으로부터 장장 57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다면, 회·빙·환이 난무하고 역사를 게임 공략집처럼 접근하는 웹소설의 클리셰를 따라갔을 수 있다.

성철은 1958년 이후의 현대사를 살아내며 '80년 광주'의 시간대도 지나 갔을까?⁴²⁾ 이 역시 〈무한의 책〉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의 아버지가 그

41) 『무한의 책』, 477쪽.

42) 참고로 산자와 망자가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마주치는 상상력은 광주 민주항쟁 증언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18에서 오빠를 잃은 여동생은 87년 6월의 광주 거리에서 죽은 오빠를 반복해서 마주친다. “얼마전 충장로를 걸어 가다가 오빠의 모습을 보았어요. 피에 얼룩진 모습으로 그냥 웃고만 서 계셨어요. 서점에 들어서면 책을 보는 사람들 속에 물결치며, 저마다의 그리움 찾아가는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오빠가 서계셨어요.” 이금희, 「한줌 흙과 나뭇잎, 풀벌레 울음소리도 이땅에서는 모두 오빠와 한몸입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증언록 I』, 5·18 광주 의거 청년동지회 편, 도서출판 광주, 1987, 63쪽. 이 자료를 알려주신 김만석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곳에 공수부대원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2015년에 다다른 성철은 박영식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온갖 잡다한 정보와 서사가 뒤섞여 있지만 <무한의 책>은 많은 시간선을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각각의 미디어가 저마다 고유한 평행우주의 성질을 갖고,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변주하고 전개한다면, <무한의 책>에 비어 있는 시간선 서사는 아무 기능도 내용도 갖지 않음으로써 기능하고 비기록(非記錄)하는 미디어를 제시한다.

이 소설의 '텅 빈 미디어'에서 '80년 광주'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의례화된 집단 기억의 서사에 포획되거나 실제 사건의 소상한 진상을 종합한 총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 담기지 못하거나 바깥에 있는 것들의 예감으로 지속한다. 그럼으로써 '80년 광주' 바깥에 놓인 아버지 영식을 상상할 수 있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 57년간의 준비 동안에, 다른 시간선에 있던 아버지에게 절실했던 아버지의 존재를 상상했을 것이다.

'5·18 상상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실과 해석, 정서들의 나열 속에 맴돌게 하지 않을 '사이', 국가의 영역이나 제도화된 학계의 영역에 분류되지 않을 때 가능한 '사이'를 사유하는 SF의 발견이다.

6. 결론을 대신하여 : 전두환의 사소한 죽음과 거대한 SF

1997년 사면 이후, 전두환은 24년 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 원로로 대접받다가 2021년 자연사했다. 향년 90세였다. 5·18에 대해선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전두환'의 죽음에 대해 SF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전에

이 사건이 '5·18 상상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강도가 있을까? 반대로 그런 죽음쯤은 하찮게 여겨도 될 만큼 시대가 아득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걸까? '전두환'만이 아니라 '5·18'마저 집단적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상의 연구에서〈ARMOR'S STORY〉(1993)와 〈리턴 1979〉(2009-2011)는 전두환 또는 전두환에 겹쳐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 직접 등장한다. 〈시간 속의 도적〉(1993)과 〈무한의 책〉(2017)에는 학살 원흉은 언급되지 않고 '80년 광주'의 비극에 가로놓인 개인사로 이 시기 역사가 조명된다.

한국 SF가 '80년 광주'를 이야기하는 방법은 '전두환의 죽음'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변동을 주목해야 한다. '80년 광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소거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직 도달하지 못한 '5·18 상상력'의 역량이 가능할까? 대답은 〈시간 속의 도적〉의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비분강개하며 깨달았던 진실과 맞닿아 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이 '5·18 상상력'과 무관할 리 없다. 최악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 역시 그때 부재했던 것들을 복기해서 최악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는 언제나 미래보다 작은 우주다. 역사의 비극에 상상력을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더 멀리 깊이 바라보려는 시도에 과감해져야 한다.

가령 2280년보다 더 먼 미래, 1958년보다 더 먼 과거와 낯선 공간을 포괄하는 '5·18 상상력'이라면, 임철우, 홍희담 등의 5·18 소설이 당연하다는 듯 한계를 그은 시공간의 스케일이 비판적으로 상대화될 것이다.

이런 도전이 SF의 과제가 되지 못할 리 없다. 이것을 해내려는 시도 속에서 SF가 무엇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가의 기준점마저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5·18 광주 의거 청년동지회 편, 『5·18 광주 민중항쟁 증언록 I』, 도서출판 광주, 1987.
강유한, 『리턴1979』, 스카이북, 2011.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료 총서 : 14권』, 광주광역시, 1998.
김희선, 『무한의 책』, 현대문학, 2017.
채영주, 『시간 속의 도적』, 열음사, 1993.
『취미가』 3월호, 하비스트, 1993.
『취미가』 4월호, 하비스트, 1993.

2. 논문과 단행본

- 강원택,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1호, 한국정당학회, 2012, 171-193쪽.
김급수, 『한국 노동 운동사: 민주화 이행기의 노동 운동, 1987-1997』, 지식마당, 2004.
김석준, 「한국의 정치개혁」,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1호, 한국정책학회, 1995, 11-29쪽.
김성배 외,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 한국행정연구원, 2014.
노태우, 『한국의 대통령 연설문 :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씨익북스, 2020.
박경섭, 「기억에서 기념비로, 운동에서 역사로: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5·18의 물신화와 성화(聖化)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4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8, 45-96쪽.
박구병,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추악한 전쟁' 청산의 최근 동향」, 『한국제노사이드연구』 창간호, 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105-116쪽.
박구병,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9권 2호,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6, 69-96쪽.
박숙자, 「5·18과 서사: 고통, 신체, 재현 -임철우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6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165-188쪽.

- 박은정,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1995.
- 박찬표, 「제13대 국회의 원내 균열·연합 구도 : 3당합당 이전 26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30권 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95-128쪽.
- 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 아즈마 히로키,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이은미 역, 문학동네, 2007.
- 이시중,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추진과정 연구」, 『통일인문학』 제98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179-227쪽.
- 이영미,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구전, 마당 — 1970, 80년대 예술문화운동의 매체들과 그 의미」, 『서강인문논총』 제35호, 서강인문과학연구소, 2012, 163-202쪽.
- 이종명,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실천문학사, 1992.
-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회보』 제24권 1호, 한국정치학회, 1990, 51-77쪽.
- 정근식,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 조희면,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2008.
- 차원현, 「5·18과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권, 한국현대문학회, 2010, 439-467쪽.
- 최다의, 「오월 광주 : 유명과 연대하기 — 임철우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8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117-139쪽.
- 최영태, 「5·18항쟁의 명칭문제 :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113-148쪽.
-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김인중·유희수 외 역, 나남, 2010.
- C 라이트 밀즈, 『사회학적 상상력』, 강희경·이해찬 역, 돌베개, 2004.
- Carl Freedman, *Critical Theory and Science fictio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0.
- David N. Samuelson, "Modes of Extrapolation: The Formulas of Hard SF", *SFStudies*, Vol.20, No.2, 1993.

Abstract

How Korean SF tells the story of 'Gwangju in 80'

Lim, Tae-Hun(Sungkyunkwan University)

There are only a handful of examples of Korean SF that talk about 'Gwangju in 1980'. However, 'Gwangju SF in 1980' is crucial in the sense that it has been identified at every major stage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since 1980. There are three main questions that this study addresses. How does the imagination that links '5·18' to 'SF' relate to and manifest in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To this end, we trace the emergence of '5·18 imagination' as a potential creative capacity. Why are narratives that imagine a 'Gwangju with 5·18 erased' either shunned or unable to escape political contamination even when they try? How does the sf that narrates 'Gwangju in 1980' differ from the so called non SF literature of Lim Chul woo, Yoon Jung mo, Hong Hee dam and others? The novels studied are Chae Young joo's *Rogue in Time* (1993), Kim Serang's *ARMOR'S STORY* (1993), Kang Yoo han's *Return 1979* (2009-2011) and Kim Hee sun's *Book of Muhan* (2017).

The trend line shows the changes in the terminology surrounding '5·18' from 12 December 1979 to 18 May 1980, the response of the academic publishing industry after the appeasement phase in 1984, the June Uprising and the revision of the linear system, the changes in policy towards 5·18 and reunification by regime, the birth of the Moon Min government in 1993 and the fall of the Hana Party, the policy of correcting history, and various controversies surrounding 5·18 from the turn of the century to the millennium.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extrapolation, which recognises various controversies surrounding 5·18 as trend lines, and backwards calculates the trend of history leading to the

occurrence of 'Gwangju SF in 1980'.

To outline the process by period, in the 1980s in Korea, the idea of combining "5·18" with "SF" was not possible. The turning point came in 1993. In March 1993, Chae Young joo's *Rogue in Time* and Kim Serang's *Armor's Story* were published in the March and April 1993 issues of 'Chwimiga *취미가*'. During the period of the People's Government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convergence of 'Gwangju in the 80s' and 'SF' was less pronounced. Paradoxically, it was revived during the Lee Myung bak and Park Geun hye administrations. Kang Yoo han's alternate history novel *Return 1979*, which renews the '5·18 imagination' from a right wing perspective, was serialised during this period (2007-2011). In 2017, the first year of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 hye in a candlelight protest, Kim Hee sun's *The Book of Muhan* is published. I would like to approach '5·18 Imagination' as a discovery of SF that considers the 'slit' that is possible when it does not fall within the realm of the state or institutionalised academia, the 'slit' that does not allow it to get lost in a list of facts, interpretations and emotions that must be included.

(Keywords: 1980 Gwangju SF, 5·18 Imagination, Extrapolation, *Rogue in Time*, *Return 1979*, *Book of Infinity*, *Chwimiga*, Chae Young joo, Kang Yoo han, Kim Serang, Kim Hee sun)

논문투고일 : 2024년 9월 7일
논문심사일 : 2024년 10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18일